

목포항 물동량 ‘기아차 효과’ 못살렸네

車선적 21% 증가 불구 철강 등 급감…1.1% 늘어

서남해 운항 연안 여객선 수송 실적은 12% 증가

목포항의 물동량과 서남해 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수송실적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목포항의 물동량은 1만2672t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2535t 보다 1.1% 증가했다.

또 목포항과 송광항, 완도항 등을 통해 서남해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수송은 지난달 말 585만204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23만8095명보다 12% 늘어났다.

물동량의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의 증설과 배후 야적장 추가 조성에 따른 장치능력 향상으로 21%가 증가한 22만2573대를 처리했다.

수출입 컨테이너도 9736TEU로 전년 같은 기간 9518TEU 보다 2.3% 증가했으며, 양곡은 대불양곡 창고 추

가 준공 등으로 41%가 증가한 20만6000t을 처리했다.

반면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철강은 7.9% 감소한 281만t, 유연탄은 13.5% 줄어든 25만t을 처리했다.

서남해안 여객 수송은 제주와 홀도, 청산 등 관광항로의 수송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목포~홀도 항로는 75만9601명으로 28%가 증가했으며, 완도~청산은

19%, 목포~제주 9%, 화흥포~소안 8%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여름철 해상의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지역의 대형행사 없어 해상 관광객의 분산이 적었던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광물 청장은 “여객선 수송실적이 연말까지 660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천년대교 완공 등 연도·연륙의 해상 교통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 수송 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해남밤호박 주식회사 출범

재배농가 107명 참여 자본금 2억2000만원 설립

해남밤호박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영)가 공식 출범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18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밤호박 시설재배농가와 관련 기관·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석한 가운데 ‘해남밤호박 주식회사’ 창립총회를 가졌다.

해남밤호박 연구회가 탈바꿈한 해남밤호박 주식회사는 고구마, 배추, 쌀, 무화과에 이은 7번째로 밤호박 재배농가 107명이 주주로 참여해 2억2000만원의 자본금을 출연했다.

해남밤호박 주식회사는 FTA 농산물 수입개방 등 국내외 농업환경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됐다.

전남도와 해남군으로부터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개별농가를 통합해 시장교섭력을 갖춘 농업회사로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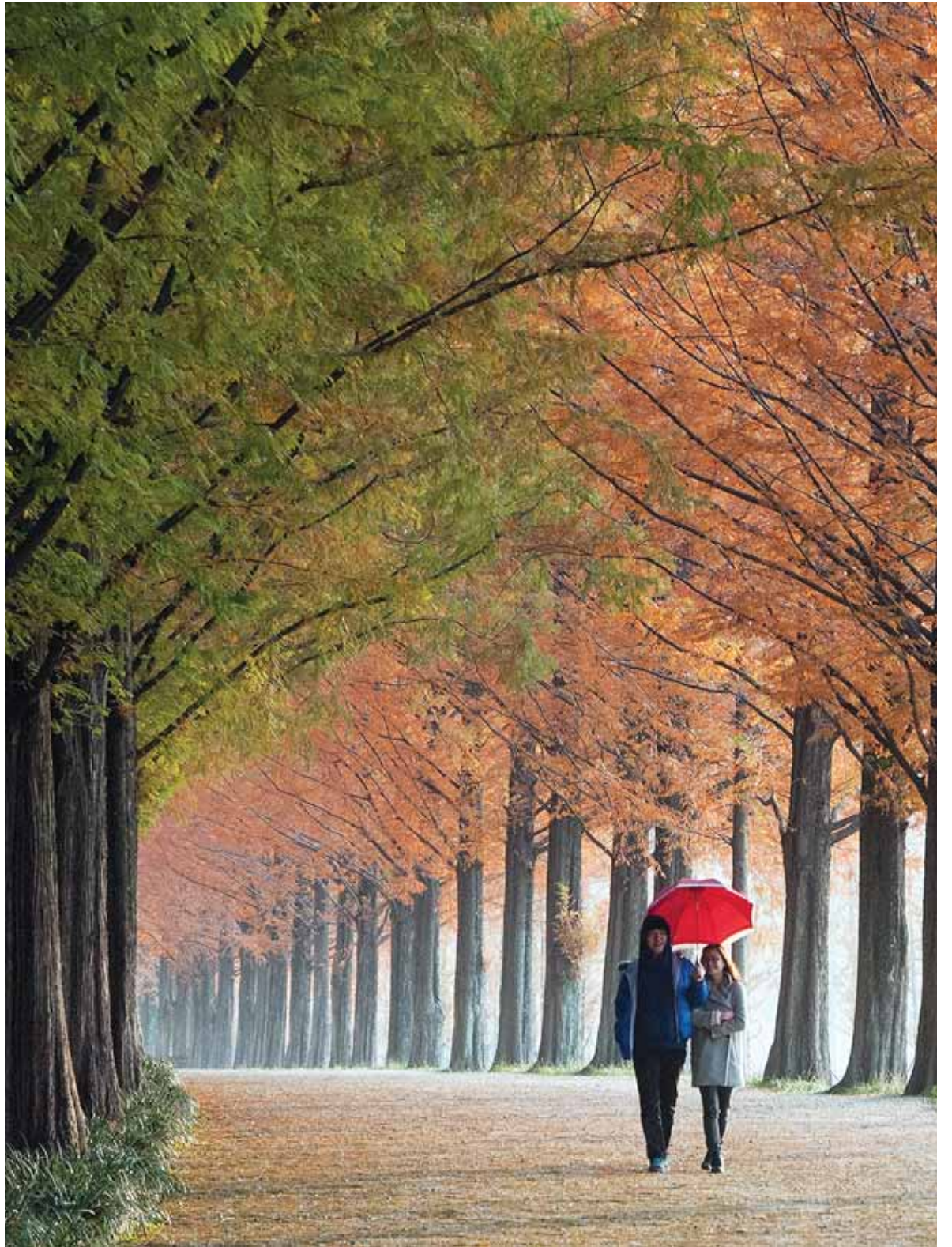
해남밤호박 주식회사는 향후 맛과 영양이 뛰어난 밤호박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까지 전담하면서 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환 군수는 “새롭게 탄생한 해

남밤호박 주식회사가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영 대표는 “밤호박 육묘에서 생산·가공·판매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밤호박 주식회사를 해남을 대표하는 농업회사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의 밤호박연구회 재배규모는 옥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시설하우스 31ha, 노지 5ha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영화 속 연인처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이 만들어낸 나무 터널속을 19일 우산을 받쳐든 한 쌍의 연인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듯 걷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zg@kwangju.co.kr

새하얀 설레임, 남도의 겨울이야기

道, 테마관광 정보 제공 홍보책자 발간

전남도는 겨울철 전남의 테마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하얀 설레임, 남도의 겨울이야기’(사진)라는 제목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자는 겨울철 남도여행지를 동행·행복·낭만·추억·힐링 등 5개 테마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알프스 구례 지리산, 달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영암 월출산, 한반도의 가장 남단 해남 두륜산 등 겨울산에 대한 정보와 사찰

들의 템플스테이를 소개했다.

또 신안 슬로시티 증도, 느림을 통해 행복을 일깨워주는 섬 완도 청산도, 아찔한 절벽의 절경이 매력인 여수 금오도 비렁길 등 느리게 걷기 좋은 길 6개소를 수록했다.

여수 향일암과 다도해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해남팡팔, 해안 절벽이 이루는 절경이 아름다운 고흥 남열해돋이해변 등 해남이·해맞이 명소 15곳과 영광 해수온



천 랜 드, 담양리조트 온천 등 온천 10개 소도 실었다.

전남도는 이 책자를 전국 관광안내

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하고 남도여행길잡이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관광정보센터(061-285-9045~6)에 연락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목포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말하기 평가

“누가 누가 어머니나랏말 잘하나”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오)은 최근 목포신흥초교 강당 및 교실에서 관내 7개국 다문화가정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제2회 다문화가정 학생 어머니나랏말하기 대회’를 열었다.(사진) 이번 대회는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영국 등 7개국어로 말하기 평가가 진행됐다.

특히 다문화 학부모들이 직접 자녀에게 모국어를 지도해 가정의 결속력을 다지고 어머니나랏말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에 참가한 학부모 후가이도

모꼬(일본)씨는 “자녀와 함께 일본 어공부를 하는 동안 가족간의 사랑과 자녀에게 모국어를 교육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알찬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도 내 아이에게 내 나라 말을 가르쳐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나랏말을 외국어라는 부담감이 없이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나주 혁신도시에

공공미술작품 설치

市-문화예술위 공동 추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개 기관이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15일 나주 LH 홍보관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전 KDN, 전력거래소 및 한국방송전파통신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과 공공미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5개 공공기관들이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미술 추진 모델을 제시하고 기관의 특성에 맞고 지역의 맥락을 살리는 공공미술작품 설치 가능해졌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즈기 만나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